

일부일처제 관련 답변

РАПП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부다처제입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명시한 일부일처제는 그 사회관계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되려 자본주의 사회 일부다처제를 반영한 한 법률적 형식에 불과합니다. 쉬운 말로 허위의식이라는 겁니다.

엔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결혼은 당사자의 계급적 위치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언제나 타산적인 것이다. [부르주아들의; 인용자] 타산적인 결혼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극심한 매음으로 변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F. 엔겔스, 김대웅 역 (1991),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p. 96.) [...] 부르주아 법은 오직 프롤레타리아의 통제와 유산자를 위한 것이기에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에 대한 지위에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p. 97.) [...] 프롤레타리아 가족은 쌍방이 열렬히 사랑하고 정조를 엄격히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또 가지각색의 종교적 의식이나 세속적 의식을 다 지녔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일부일처제적 가족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부일처제의 영원한 동반자인 난혼이나 간통도 여기서는 전혀 보잘것 없는 역할을 한다.(p. 97.)"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여성이 자기의 사사로운 가정 살림만 돌본다면, 그는 여전히 사회적 생산에서 제외되어 아무것도 벌 수 없게 된다. 또 만일 그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인 벌이를 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가정 살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지위는 공장에 진출하건, 의사 및 변호사를 막론하고 어느 직업 분야에 진출하건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사회는 순전히 개별 가족이라는 그런 분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오늘날 남편은 대다수의 경우에, 적어도 부르주아 계급에 있어서는 돈을 벌어들여야 하며 가족의 부양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에게 지배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것은 법률상의 어떠한 특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p. 99.)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전 단계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경제적 지위에서 남성이 우세를 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건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회적 지배—엔겔스는 이를 남성독재라 표현—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엔겔스가 지적하는 아내에 대한 일상적 구타 행위, 그리고 매음—다루는 문헌에서 이미 그 역사적 기원이 충분히 추적된—은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남성의 '특권'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학대는 그 성격을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잉글랜드 임노동계급의 상태》, 그리고 마르크스의 경제적·철학 수고와 연동해서 본다면, 인간 소외로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는 소외를 이 부분에서 굳이 주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일처제는 어떻게 되는가? 엔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부일처제[낮은 사회에서 외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인용자]가 그 경제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이 경제적 원인이 소멸하면 그것도 소멸할 것인가? 일부일처제는 소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그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됨과 더불어 임노동도 프롤레타리아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일정한 수의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팔 필요도 소멸할 것이다. 매음은 소멸될 것이나 일부일처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남자에 대해서도 현실로 될 것이다."(pp. 101-102.)

그리고 공산제 하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변화, 가사노동, 육아의 사회적 성격 변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그러하여 남자의 지위는 상당히 변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지위, 즉 모든 여자의 지위에도 역시 심한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됨으로써 개별 가족은 이제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사사로운 집안 살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시키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될 것이다. 사회는 적자나 사생아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을 똑같이 돌보아 줄 것이다.(p. 102.) [...] 완전히 자유로운 결혼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에 기인하는 소유관계가 지양됨으로써, 오늘날 아직도 배우자의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부차적인 경제적 고려가 제거되는 때에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때에는 이미 상호 간의 애정 이외에 다른 아무런 동지도 없게 될 것이다.(p. 109.)"

시간이 시간인지라 대부분 인용으로 채웠는데, 실제로는 제가 인용한 부분이 분석의 끝이 아닙니다. 엔겔스는 여성이 남성에게 어떻게 종속되고 지배당하게 되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헌은 모권제의 소멸, 가부장제, 일부다처제, 일부일처제의 발생사를 여러 인류학자를 동원하여, 정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대 영국과 프랑스의 인류학자를 많이 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